

마음 길들이기

아잔 차 스님 (태국)

〈4〉 지혜로 가득찬 '빈마음'

사랑·탐욕·분노가 오면 온 곳으로 돌려 보내라

무거운 바위와 같은 자아의식 '아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아만 즉 '나' 라는 자아의식은 바로 그 무거운 바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만을 버릴 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만을 결국 놓아 버릴 수 있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는 칭찬이나 비난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을 원하고 비난을 원치 않는 것은 세속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칭찬받을 만한 때에는 칭찬을 받아들이고, 또 비난을 받을 만한 때에는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키울 때 항상 야단만 친다면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야단을 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야단칠 때와 칭찬할 때를 잘 압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음을 알기 위해 지성을 발휘하십시오. 마음을 보살피는 데 좋은 방법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을 닦는 데 있어 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잘 길들여지면,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괴로움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은 바로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괴로움은 언제나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괴로움은 바로 여기 마음에서 생겨났습니다. 또한 바로 이 마음에서 없어집니다.

마음이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때는 나쁜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은 속임수 투성이입니다.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그 대신 마음 자체를 만드는 조건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조건들은 단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것이 선한 견해 또는 다른 어떤 것이건, 결국은 그러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조건들을 붙잡고 있지만 않는다면 그것들은 원래 있던 그대로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물리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른 견해(正見)'을 가지면 오로지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삼매가 생기게 되고 지혜가 그 뒤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법을 들려주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범문중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쉽게 지는 선정 수행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이 옳게 생각되든, 그르게 생각되든 간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도 스승이란 입장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를 겪어왔습니다. 나 역시 어디를 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지 들을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범문 듣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여러분들도 한 선생으로부터 범문을 듣게 된

“어떤것도 지니고 있지 마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면

비어 있는 집과 같아 빈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지혜로 하게 됩니다”

“마음을 만드는 조건을 바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세요

그 조건을 붙잡고 있지만 않으면

삼매가 생기고 지혜가 뒤를 이어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며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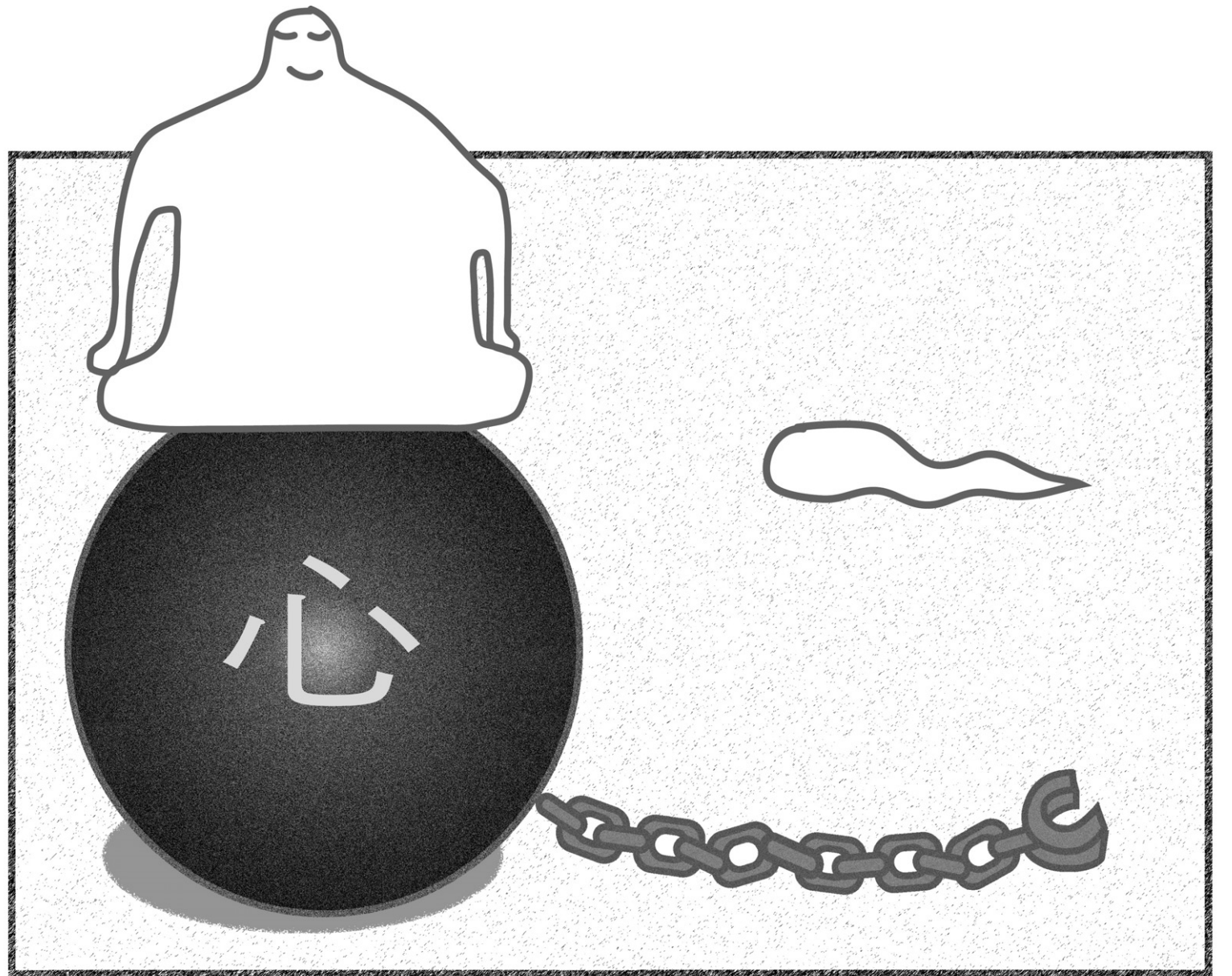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 듣고 있는 동안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흐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법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영감을 느끼게 되고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더 먹게 되고 또 여전히 법을 갈망할 때 법의 향기는 유난히 감미로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다른 스님들을 대표하는 표본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자신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지도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즉시 생각을 그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법을 닦는 길은 무수히 많습니다. 선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또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쓸

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의 의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어디에 앉아 있던 어느 곳을 걸어가는 거기에겐 평화와 평안이 있습니다. 어디서 선정을 닦거나 그곳은 정지(正知)를 내는 장소가 됩니다. 선정을 앉거나 걸으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장소가 우리에게겐 공부입니다.

正知 · 正念일때 생명을 볼 수 있다

거기에 항상 정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정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정신과 육체의 생명을 볼 수 있으며, 그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흐트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을 언제나 되돌려 보내버립니다. 사랑이 오면 그것을 다시 온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탐욕이나 분노가 다가와도 다시 온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곳으로 그것들을 잘 호호해 주십시오.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면 여러분은 비어 있는 집과 같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는 빈 마음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를 '빈 마음'이라고 하지만,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없어 비어 있지만 그 대신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혜로써 하게 됩니다. 지혜로써 생각하고, 지혜로써 음식을 먹습니다. 오로지 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이며 여러분께 이것을 드립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이라는 테이프에 녹음한 셈입니다. 법을 듣고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것도 굳이 기억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오로지 듣기만 하면, 지금처럼 얘기가 흘러 가는 대로 그저 끊임없이 따라가며 곱씹어 음미하면, 그때 우리는 바로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지나서 다시 '떨어놓을 때' 모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 것도 남지 않고 사라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녹음을 틀자마자 모든 것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모든 스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법의 언어를 배우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

이 글은 (사)교묘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원 시리즈 중 2번 《마음 길들이기》의 내용입니다.

<p>불자 정보 894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포교당 75평 • 대명5동58-7 [지하철30m] • 8차선 대로변 버스정류소 앞 • 4층 건물에 3층 • 보 1000만 월세 75만=관리비 수도세포함 • 5존별 법당당 45평 • 시설비 1700만 조정가 053)657-0151 010-2273-7631</p>	<p>사찰안내 • 위치: 전남 담양군 고서면 • 무등산자락 • 평수 약 500평 • 한옥1채, 가옥1채, 자연경관 수려함 • 가액: 1억 2천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4608-5945</p>	<p>숲속의터, 절 전원주택 • 위치: 총평수:전,담 1300평 • 지방도로 접해있음 • 정 남향,택지조성 되어있음 • 터주위 3면이 숲으로 형성됨 • 보전관리,경관이 수려함 • 택지상단에 안방무릎있음 • 가액:8천3백만원(절충가능) 010-2493-2452</p>	<p>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청송 • 대지: 135평 • 법당 14평, 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9천 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p>
<p>포교원안내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75-10 • 평수 10평가량 • 2층의 2층 • 법당, 집기일체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7579-2711</p>	<p>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교 • 서울 1시간 거리의 60여년 창건역력 • 삼성각, 종각, 대법당 • 2층 중무실, 요사채2동 • 건평 총 146평 • 종교용지 364평, 임야 1,690평 • 양도가액: 5억 3천만원 010-9669-1358</p>	<p>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월곡동 • 평수: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662-5527</p>	<p>포교원안내 • 서울 강북세무소 뒤, 기업은행사거리 • 버스정류장 앞, 위치 최상 • 평수 25평, 2층상가 건물에 2층단독 • 법당, 방, 거실겸 주방, 욕실 • 에어컨 2대, 정수기1대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1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069-1587</p>	<p>사찰안내 •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북 왜관 사찰 • 부지: 2천 500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p>
<p>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대구역 맞은편 • 법당, 방2, 주방, 샤워장, 마당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스님이나 법사님 가능 010-8019-8966</p>	<p>포교원안내 큰스님께서 두 절을 운영하기 힘들어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 위치: 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 • 평수 1층 40평, 교통편리 • 시설완비, 즉시법회운영가능함 • 주차장완비, 전월세조정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있음 시설비 약간 010-7197-8216 017-580-2425</p>	<p>포교원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최요지 • 평수 22평 • 모든시설완비, 최고의 조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시설비 합 500만원 010-8315-2100</p>	<p>토굴안내 • 위치: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9천만원 054)787-2697 010-3518-3958</p>	<p>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 임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p>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단체명의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